

• 2026 년 10 월 속회

1. 환영과 인사: 속장

2. 찬송: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새 559/통 305)

3. 시작하는 기도: 속원 중

4. 감사의 고백과 나눔:

- 1) 속원들이 돌아가면서, 지난 한달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나눕니다.
- 2) 속회에서 기도와 선교비로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해주세요.

5. 성경읽기: 마가복음 10:1 - 12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 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증서를 써 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6. 본문의 내용

본문은 예수님이 유대 지경을 떠나 요단 강 건너편 베뢰아 지역으로 가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와서 시험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혼 법정의 정당성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침밥을 태우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이유로도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오직 성적인 부정을 저질렀을 때만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러한 논쟁을 핑계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율법주의적 질문에 맞서 모세의 이혼 허락 조항(신명기 24 장)의 본질을 짚어 내십니다. 그 조항은 이혼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남성 중심 사회에서 버림받은 아내들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창세기 1 장과 2 장의 창조 당시로 돌리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법적인 이혼 허용 여부를 따지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태초 창조 질서와 가정의 신성함을 회복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어지는 제자들과의 사적 대화에서 예수님은 아내가 남편을 버리거나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행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남녀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며, 일회성 계약으로 전락한 당시의 결혼관을 뒤엎고 서로 헌신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언약인 결혼과 가정을 세우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7. 나눔

내 삶에서 나의 이기적인 목적이나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소중한 관계(부부, 형제자매, 친구, 숙원, 성도, 동역자 등)를 소홀히 여겨 멀어진 경험은 없습니까?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8. 합심기도

- 1)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새롭게 다짐하는 내용을 위해
- 2) 숙원들을 위해, 특히 속회에 나오지 못하거나 아픈 숙원을 위해
- 3) 아콜라 교회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 4) 우리 속회가 기도와 선교비로 후원하는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9. 주기도문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속회 모임을 마무리합니다.

(통일 305)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559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시 112:1-2)

전영택(1894-1968)

임마누엘 가정: 10.10.10.10.REF.

구두회, 1967

보통으로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 고 하나님 아버지 모 션으 니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 고 동기들 사랑에 뭉 처잇 고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 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 가

믿음 의 반석도 든든하 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 라
기쁨 과 설움도 같이 하 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 라
한상 에 둘러서 먹고마 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 라

후렴
고마워 라 임마누 엘 예 수만 섬기는 우 리 집

고마워 라 임마누 엘 복 되고 즐거운 하루하 루

쉬운 기타코드(capo=1st) D^b→C A^b→G E^b7→D7 G^b→F